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6년 4월 7일(화) ~ 5월 7일(목) / 온라인 심의
 - (본심) 2026년 5월 14일(목)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하진, 박현숙, 이선영, 장우성, 진영섭

202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는 무대 공연으로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굴과 무대화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총 84건, 이중 결격사유로 확인된 16건을 제외한 68건이 예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7건이 본심 대상으로 올라 5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작품성 80%, 무대화 가능성 20%의 비율로 지원작을 심의하였으며 작품이 차별화된 주제와 소재를 바탕으로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동시대성을 반영한 공감 가능한 정서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장면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극의 몰입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지, 서사와 넘버가 얼마나 긴밀하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현재의 대본 완성도뿐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과 실제 공연화 과정에서의 확장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접수 작품은 창작자들의 관심사와 상상력이 폭넓게 확장된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시대극과 일상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들, 동시대적인 고민이 짙게 드러나는 일상적인 소재들로 작품의 규모와 소재 및 장르의 다양성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신한 소재와 세계관 설정에 비해 뮤지컬 문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뮤지컬 문법 안에서 쓰인 작품들은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익숙한 구조와 전개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이후의 흐름이 예상 가능하게 읽히거나, 서사적 긴장과 형식적 새로움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구현한 작품들이 눈에 띄기도 했으나 대부분 서사와 함께 개별 넘버의 완성도나 분위기가 인상적인 장면들이 감정의 고조 없이 관습적으로 배치된 솔로나 반복적인 앙상블 구성, 다소 어색한 송 모멘트들이 극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이 극적 전개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기보다 분위기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는 점이 아쉽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넘버 안에서 서사가 확장, 전환되는 방식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강점과 개성을 지닌 만큼 작품 간의 결이나 방향성에도 편차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익숙한 문법 안에 동시대적인 정서를 담아내려는 시도가 돋보이거나, 동시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정서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소재와 메시지를 대본 전반에 걸쳐 잘 운용되어 몰입도가 있는 작품들이라는 평가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피한 창작의 특성상 추후 서사와 넘버의 유기성을 보완했을 경우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잠재력이 기대되는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현재의 창작뮤지컬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과 한국 창작뮤지컬이 보다 다층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익숙한 서사를 새로운 감각으로 변주하려는 창작자들의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대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연화 단계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를 통해 동시대의 질문을 무대 언어로 진정성 있게 풀어내고자 하는 시도들 또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모가 그러한 작품들과 창작자들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과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이야기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창작자들의 진심 어린 문제의식과 상상력이 앞으로의 한국 창작뮤지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공모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애쓴 시간들에 감사드리고,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어가실 창작자분들의 걸음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